

누룩(이성부)

※ <누룩(이성부)> 기본내용 파악

⇒ 이 작품은 술을 빚을 때 쓰이는 발효제인 누룩을 의인화하여 자신을 희생하여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 역사를 진전시키는 민중의 저력을 형상화하고 있다. 누룩은 알맞은 바람을 만나고 좋은 물을 만나면 스스로 썩어 문드러지지만 술이 되어 누군가를 춤추게 하고, 기쁨을 주고, 해 솟는 얼굴로 만든다. 시인은 이런 누룩의 속성을 통해 자신을 희생하고 사회적 연대를 통해 억압적인 사회를 극복해 가는 민중의 모습을 구현하려 하였다.

※ 구절 의미 풀이

✓ 누룩 한 덩이가

↳ 술을 빚는 발효제, 민중

✓ 뜨는 까닭을 알겠느냐

↳ 발효하는, 썩는 ↳ 말을 거는 형식으로 친밀감 표현

✓ 지 혼자 무력(無力)함에 부대끼고 부대끼다가/ 어디 한군데로 나자빠져 있다가

⇒ 발효 전의 누룩의 모습

⇒ 무력감에 빠진 민중의 모습

✓ 알맞은 바람 만나

↳ 누룩을 일깨우는 긍정적인 소재

✓ 살며시 더운 가슴

↳ 발효하는 가슴, 민중의 연대감, 열망을 지닌 가슴

✓ 그 사랑을 알겠느냐

⇒ 새로운 역사와 민중에 대한 사랑

✓ 오가는 발길들 여기 멈추어/ 밤새도록 우는 울음을 들었느냐

⇒ 누룩이 끓는 모습

⇒ 민중의 현실적 고난으로 인한 눈물

✓ 지 혼자서 찾는 길이/ 여럿이서도 찾는 길임을/ 엄동설한 칼별은 알고 있나니

↳ 민중이 바라는 새로운 시대로 가는 길(연대감)

- 칼별 ⇒ 혹한 속의 별(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는 민중의 상징)

⇒ 연대를 통해 현실을 극복해 나가는 민중에 대한 기대감

✓ 무르팍 으깨져도 꽃피는 가슴

↳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 의인법으로 정서를 드러냄

✓ 그 가슴 울림 들었느냐 ⇒ 누룩 끓는 소리

✓ 속 깊이 쌓이는 기다림/ 삭고 삭아 부서지는 일 보았느냐

↳ 고통에 대한 인내 ↳ 누룩의 발효 과정

⇒ 새로운 시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민중의 모습

✓ 지가 죽어 썩어 문드러져 ⇒ 누룩의 희생

✓ 우리 고향 좋은 물 만나면

↳ 발효하기 위한 조건

✓ 덩달아서 함께 끓는 마음을 알겠느냐

⇒ 고난을 감내하던 민중의 모습(연대감, 유대감 강조)

✓ 춤도 되고 기쁨도 되고/ 해 솟는 얼굴도 되는 죽음을 알겠느냐

⇒ 민중의 죽음이 새로운 희망을 가져옴(역설법)

✓ 안 지금 감춰 둔 누룩 뜨나니/ 냄새 퍼지나니

↳ 영탄법

⇒ 부정적 현실에 대한 저항 의지 확산

☺ 고득점 꿀팁~! - <누룩>에 대한 심화 이해 및 핵심 정리 ☺

향기로운 술은 썩어 문드러진 누룩이 있었기 때문이다. 화자는 '누룩 한 덩이가 뜨는 까닭을 알겠느냐'라는 물음을 던지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알맞은 바람'을 만나면 사랑을 내어 보이는 누룩은 고통과 찢박을 이겨내고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이러한 누룩을 통해, 억압적인 사회 현실에서 고통받고 있는 민중이 소시민적 무려함에서 벗어나 자신을 희생하며 다른 이들과 연대하고 저항함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그려내고 있다.

누룩 + 바람과 물 → 술

↓의인화

민중 + 자기희생과 연대의식 → 새로운 세계(자유, 민주주의)

※ 작품의 짜임

1연	누룩이 뜨는 까닭에 대한 인식
2연	누룩이 겪는 시련과 고통
3연	술이 되기 위한 누룩의 인내
4연	발효로 술이 되어 타인에게 기쁨을 주는 누룩
5연	발효하여 퍼지는 누룩과 술의 냄새

※ 작품 정리

1. 갈래: 자유시, 서정시
2. 성격: 상징적, 의지적, 저항적
3. 주제: 자기 희생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이끄는 민중의 힘
새로운 시대에 대한 신뢰와 기대감
4. 특징
 - ① 소멸과 생성의 구조
 - ② 자연물의 속성을 이용해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있음
 - ③ 누룩을 의인화하고 역설적 표현을 활용함
 - ④ ‘~느냐’와 같이 말을 거는 형식으로 친밀감 표현
‘~느냐’라는 의문형 진술을 반복하여 누룩이 썩어 술이 되는 것의 의미에 대해 전달하고 있음. ⇒ 청자에게 묻는 방식으로 진술하여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음